

무령왕[武寧王]

백제, 다시 강국이 되다

462년(개로왕 8) ~ 523년(무령왕 23)



무령왕릉 내부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무령왕(武寧王)은 백제의 제25대 왕으로 재위 기간은 501년~523년이다. 재위 기간 동안 담로제(擔魯制)를 실시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하고, 백성에게 귀농과 정착을 장려하여 농민층의 안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고구려와 가야 지역에 진출하여 영역을 넓혔으며,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로써 무령왕은 양(梁)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천명할 정도로 백제 중흥의 기반을 마련했다.

2 무령왕의 탄생과 즉위과정

무령왕의 성은 부여(扶餘)이고, 이름은 사마(斯麻) 혹은 융(隆)이다. 이름을 따서 사마왕이라고도 한다. 『일본서기』에는 도군(嶋君)이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시호는 무령이다. 무령왕릉 출토 지석에 의하면 462년(개로왕 8)에 태어났다. 501년(동성왕 23)에 동성왕(東城王)이 시해되자 4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고, 523년 사망 시까지 23년간 나라를 다스렸다.

무령왕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사료에 따라 다양한 주장이 있다.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라는 설, 개로왕(蓋鹵王)이 생부이고 곤지(昆支)는 의붓아버지라는 설, 마지막으로 곤지의 첫째 아들이고 동성왕은 그의 이복 아우라는 설 등이다. 그러나 무령왕릉 출토 지석의 사망연대를 역으로 계산하고, 여러 사료들을 비교 검토한 결과 현재는 곤지의 장남이자 동성왕의 이복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곤지는 왜에 가던 도중에 축자(築紫)의 각라도(各羅嶋)에서 무령왕을 낳았다.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도군(嶋君)이라 하고, 곧바로 배에 태워 백제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관련사료](#)

백제에 돌아와서 즉위하기까지 무령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다만 한성 함락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보아, 개로왕과 함께 왕궁에서 거주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러다가 곤지가 귀국하면서 아버지를 도와 국내 정치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사료](#) 무령왕이 다시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동성왕이 시해되면서부터이다. 동성왕 시해를 주도한 백가(昔加)는 무령왕 즉위 직후 반란을 일으켰다가 무령왕에 의해 곧바로 진압당하고 만다. 40세의 노련한 무령왕은 정치적으로 동성왕의 죽음과 자신의 즉위를 이끌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혁정책을 펼쳐 나가게 된다.